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2021. 12. 5. (다해) 제2297호

대구주보



그들이 묻어둔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갑니다
복자성당 순교자묘지
앞에서.

1 1 0 1 1 1 0 + 1 3 2 1 1 1 1 1 1 1 2021. 10월 11일

복자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 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루카 3,4)



김수환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원장 | 최광득 토마스 신부

건강하십니까?

건강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물을 때는 주로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에 가끔은 미사를 중단하거나 참례자 숫자를 줄여가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앙생활에 소홀해진 신자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영혼의 건강까지 해칠까 염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가톨릭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다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루카 3,4)하면서 우리들이 회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도 회개를 통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준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대림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우리로 인해 사회도, 환경도, 세상도 더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다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2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필리 1,10) [필리](#)

라합 (여호 2; 6,17.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예수님의 조상 라합은 가나안 땅 예리코에 살던 이방인 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예리코 성읍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라합은 궁지에 몰린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 목숨을 구해주었고(여호 2장), 그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받아들여졌지요(6,17.22-25). 그렇게 라합은 유다의 7대손인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즈(룻 2-4장 참조)를 낳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태 1,5).

예리코의 창녀였던 라합의 집은 성읍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성벽 담에 붙어 있었는데(여호 2,15), 이는 그녀가 직업상 동족들에게 천대를 받았고 성읍을 거처가는 아무라도 맞아들여야 하는 고된 '변두리 인생'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자매와 친지들이 있었음에도(6,23) 창녀로 살아야 했다는 건, 가족들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2,9-11) 하며 하느님께 희망을 걸었던 그녀의 고백은 더욱 간절해 보입니다. 과연 라합(רַחַב: ‘활짝 열다, 넓히다’)이란 이름 그대로, 그녀는 나락에 떨어진 삶 속에서도 못 남정네들이 전해준 하느님 소식을 귀를 열어두고 있었고 그분의 보호 아래 의탁하려는 마음 또한 열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탈출을 도우면서, 이스라엘이 예리코를 정복해 들어올 때 자신과 온 가문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창

문에 매달기로 약속한 진홍색 줄은 그 신표(信標)였지요. 이 진홍색 줄은 이집트 탈출 때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치지 않고 지나갔던 파스카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초대 교회 교부들(오리게네스, 예로니모, 암브로시오)은 이 진홍색 줄을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형으로, 즉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창녀’ 라합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된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예형(순결한 창녀)이 되었고, 특히 신약성경 서간들은 라합을 “믿음으로써 순종하여 구원된 의인”(히브 11,31), “실천으로 의롭게 된 신앙의 모범”(야고 2,25)으로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읍 예리코에 살던 그 누구보다 밝은 해안과 넓은 가슴을 지녔던 여인 라합, 자신을 지켜주지도 지원해 주지도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 모두를 살리고자 간절히 비는 그녀의 모습에 선(여호 2,12-13) 구원자의 면모마저 엿보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환난이 닥칠 때 가족 모두 집 안에 모아들이겠다는 계약의 조건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살린 라합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주민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완전 봉헌’(Herem) 규정마저 초월하는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라합과 함께 우리도 일상의 창에 믿음의 진홍색 줄을 드리우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를 하느님의 길 안에 머물도록 지켜내어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라합’으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기도**



짐이 되지 않는 집

교구 문화홍보국

“집을 마련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정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 생태론의 핵심 과제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52항)

예부터 집은 부의 척도였고 지금도 그 기준은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몇 해 전에는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을 사는 집에 따라 차별하여 분리시켰다는 언론 기사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언젠가부터 내 집 마련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위 ‘영끌’까지 해서 집을 장만하다 보니 결국 짐이 삶의 짐이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짐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집은 자산 가치 이전에 삶과 생명의 터전이고 사생활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질을 쫓는 삶의 방식에서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살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고 그 삶에서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짐이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당연한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작은 집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려면 가구나 물건들도 최소한도로 소유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최소한의 공간 속에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집이야말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현대적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지향적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건에 대한 의존도와 소유욕은 더욱 커집니다. 반면에 창조성의 표현은 점점 줄어듭니다. 채우고 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규모에 맞게 선택하고, 집안을 채운 물건 중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필요한 곳에 기증하도록 합시다.

진정한 부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요? **필문**

“큰 집과 큰 부채를 짊어지고서 주위의 자연세계를 음미할 시간도 없이 사는 삶은 어리석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월든』 -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김대권(金大權) 베드로는 충청도 청양의 수단리(현 충남 청양군 사양면 신왕리)에서 태어나 보령의 청라동(현 충남 보령군 청라면 청라리)으로 이주해 살았다. 1816년 대구에서 순교한 김화춘 야고보는 바로 그의 아우이다.

김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교리를 배워 왔으나, 열심히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부모가 사망한 뒤였다. 김 베드로는 한때 충청도 공주의 웅기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이 무렵에는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을 뻔하였다. 그 사고 뒤에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서로 이야기하였고, 이후로는 아내와 화합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었다.

김 베드로는 언제나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데에 열중하였다. 주일마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주님 성탄 대축일이면 근처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다. 호랑이가 나타나도 개의치 않고 기도를 다 하였다. 사순 시기 때면 기도와 묵상을 거르지 않았고,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아우 김 야고보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도 아우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순교의 뜻을 밝혔다.

김 베드로는, 전라도 고산으로 이주하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827년 정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포졸들이 그 마을로 들이닥치자, 김 베드로는 웃는 얼굴로 그들 앞에 나아가 순순히 고산 관아로 끌려갔다.

고산에서 한차례 신앙을 증언한 베드로는 곧 전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전주 관장이 그의 아들을 데려와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는 “이러한 일로 목이 잘리면 아들에게도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배교를 거부하였다. 이후 그의 아들은 유배형을 받았다.

감사 앞으로 끌려가서도 김 베드로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수난의 은혜를 한 터럭만이라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순교의 뜻을 드러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의 삶과 뼈에 사무쳐 있으므로 사지를 자르거나 뼈를 부순다고 하여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대권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12년 동안을 전주 옥에서 생활해야만 하였다. 1839년의 기해박해 때에, 임금의 명으로 전주 장터(숯정이)로 끌려 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39년 5월 29일(음력 4월 17일)이었다.



김대권 베드로
(? ~ 1839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제40회 인권 주일 담화, 제11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

“정치를 새삼 소중히 여기라고 호소합니다”

(『모든 형제들』, 180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님의 제40회 인권 주일 담화문, 제11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 혼인의 사랑 ⑤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심각한 불의에 맞서도록 할 때에는 유익하지만 다른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스며들어 있다면 해롭습니다.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분노에 대한 내적 반응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곧 다른 이의 복을 바라고 하느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양감음하다’(의)... 반대말은 용서이며, 용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치는 지대한 희생정신으로써만 보존되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해, 인내, 용서, 화해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관대한 개방성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고백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용서받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체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103~108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경제주행 _ 급출발, 급정지, 공회전 하지 않기, 경제속도 준수, 트렁크 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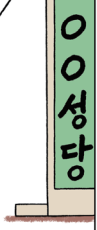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47호 정답

1. ② 2. (공통된 말) 주님을 경외함 3. ① ③ ⑤ 4. 그분께서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기 때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만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신앙활동도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8일(수) 10:00 평화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12월 6일(월) 11:00 성모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11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2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2.12(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3(목) 16:30~

25일(토) 13:30

장소: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4만원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2021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송년 피정

일시: 12.26(일) 14:00~17:00

장소: 강화피정의집 (온라인 참여 가능)

대상: 40세 미만 미혼 남녀

주관: 예수성심전교수도회/수녀회

문의: (010)4386-3103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미사, 올레길·오름 트레킹

기간: 12.11~13 / 12.30~1,2 /

1,8~10 / 1,21~23 / 1,28~30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신약 통독 모임

접수: 수시 / 대상: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010)4012-3742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코로나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

김옥순 수녀 『Bible & Old story』 특별전

기간: 12.1(수) ~ 12(일) 오픈식: 12.1(수) 15: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 갤러리 전관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립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만민아트센터1
입일아트총관 **최한일미술가** **온수아트**
소름아트작곡기 **게르마눔아트** **대구총관**
파크골프
 초보자 모집, 레슨 / 골프세트 - 교우특별할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흥단지로 45 전차관 1층 239호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외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별말친구)
 수성구 합곡내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의료부
 인종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한국성지 167 완주 (주)미카엘여행사
 22.01.17(월)~01.20(목) 전주,광주대학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
 12.13(월)~12.16(목) 12.20(월)~12.23(목)
 22.01.03(월)~01.06(목) 01.07(금)~01.09(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강찬형(파스칼) 신부
1995년 12월 5일
- 장병보(베드로) 신부
1983년 12월 8일
- 안군목(마가리오) 신부
1948년 12월 8일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교 방학미사

일시: 12.12(일) 14:00
대상: 1~5대리구 모든 예비신학생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12월 가정특강 온라인 강의 배부

일시: 12.13(월) 10:00
주제: 애착의 중요성과 자녀양육
시청방법: 카카오톡 채널 검색_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월배성당 대림 9일 기도, 특강

기간: 12.6(월)~16(목)
장소: 월배성당 성전
문의: 월배성당 사무실, 636-1302

뿌에리, 뿌엘레 간또레스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일시: 12.26(일) 17:00
장소: 공간올림연주홀

주최: 수성아트피아, 전문예술단체
공간올림 / 문의: 765-5632

교육 | 모집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합창교실/성가교실): 월, 화, 목, 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 금, 토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미술심리상담사 2급·1급, 섬유공예,
제대꽃꽂이, 성물도예, 사군자문인화,
사범꽃꽂이, 칼림바, 발성법, 장구,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바오로딸 12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12.18(토) 15:00~16:30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강사: 이제민 신부
예약: 바오로딸, (010)6681-5185

대구대교구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모집

일시: 매주 주일 14:00~18:00

장소: 대구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대상: 천주교 신자 누구나
초보자부터 선수까지 함께 어울려 운동
문의: 김 안드레아, (010)2600-2846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509-9748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zoom 수업)

기간: 1~12월(3개월에 10만 원씩)
시간: 일요일 오후 4:00~6:00
문의: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지도 신부,
(010)4598-6912

채용 | 안내

다사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엑셀)가능,
신앙생활에 충실한 자
서류: 이력서, 자소서, 교적증명서
마감: 12.31(금)
문의: 587-7300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밀알회 후원 모집

다음주(대림 3주) 자선 주일에는
교구 전 본당에서 사회복지후원회
인 밀알회 홍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레이저 백내장 노인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수술(소피아), 홍정훈(대건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착함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N'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97%)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신동) 척탑병원 3층
청라연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8년 경력

053)471-0707 | 010-2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마스크(의약외품)

KF94(일 반)	100장 30,000원
KF94(세부리 흰색)	100장 35,000원
KF94(세부리 칼라)	100장 40,000원
비말AD(흰색)	100장 10,000원
비말AD(칼라)	100장 12,000원

대표 장 종 화(분도)

분도상사 010-3537-5559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연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피노비즈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